

최근 국내의 사료사정과 전망

유 윤 수
(사료협회 회장)

축산부문에서 사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료원료 도입액은 1억불 정도로 추산되는 반면 종축도입 기타는 5,000만불 정도에 불과하다. 정부의 재정이 허락할때에만 사료를 들여오던 과거의 사정이 아니라 사료는 중요한 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때에 사료난에 또다시 직면하여 양축업자는 물론 사료업자 등 업계가 일괄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사료사정과 정부에 제의하고 싶은 내용, 미국사료곡물협회 아시아 대표에게 요청한 사실, 양축가에게 드리고 싶은내용 등을 골자로 하여 요약해 본다:

현재 한국의 사료사정

사료원료는 강류사료를 제외하고는 옥수수 어분 기타 박류 등은 사상최고로 보유하고 있으나 사료의 질이나 효율은 가장낮고 가격은 최고이며 유통할 물량은 충분히 있으면서도 잘 유통이 되지 않고 있다. 즉 축산사업의 주요 원자재인 사료가 순조롭게 유통되지 않고 있다.

1) 원료의 가격문제,

소련이나 기타 생산국가와 수요가 맞지 않는다. 세계적인 곡류의 등귀현상으로 사료 가격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호주 남미 캐나다 등 곡물 수출국가에서 많은 양의 증산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이 피크가 내년 6월경 까지 가지 않을가 본다.

장기적인 기간(10년, 20년)으로 볼때는 반드시 올라 가겠으나 가까운 장래는 조금 떨어졌다가 또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옥류생산이 결부되지 않으면 30~40년후에는 어려울 것이다.

명년 6월까지 사용하게 될 옥수수의 구매가격은 평균 145\$~146\$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동전쟁 때문에 선임이 떨어졌던 것이 다시 올라갔다.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누구도 전망은 확증할 수 없다.

그러나 기후만 순조롭다면 명년 6,7월에는 미국에서 소맥이 수확되기 때문에 그 물량으로 대치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옥수수는 가을에 수확되므로 가을까지 이 시세가 유지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박류는 현재도 계속 하락시세에 있으며 12월 초순을 고비로 해서 가격현실화 조치로 사료업자의 측면에선 32%정도 인상을 전의 하였으나 25%정도 인상 될것 같다.

양축가와 사료업자에 대한 요청

1) 실무자는 서로 실정 그대로의 정보를 교환하자

2) 힘이 없고 자금이 부족한 사료공장은 군소 사료업자 까지 통합을 하든지 접어 치우지 않으면 앞될 시기가 왔다.

사료업이란 축산업의 선도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울때에 사료를 외상으로 주고 축산물을 대신 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사료공장의 계열화가 필요하며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사료공장이 운영되어야 한다.

그래야 양축업자가 안심하고 사료를 구할 수 있고 양축경영이 안정될 수 있다. 사료공장측에서도 현재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는 양축업자를 대신해서 사료공장에 부탁하고 싶은 사항이다.

축산업의 당면한 문제 및 사료부문의 문제점(정부에 건의 사항)

축산부문의 발전 촉진을 기하기 위하여 정부에 보조를 요구 해야, 그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보조는 못해 주더라도 가능한 선에서 바라고 싶다.

1) 고초기에 가축은 시체가 떨어지고 풀이 성수기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정한 원리가 아닌가?

우리나라 농촌의 한우와 돼지는 고초기에 들어가면 시장출회(市場出廻)가 많아지기 때문에 자연히 가격이 저조하여지며 춘기(春期)의 한우의 사육과 돼지의 번식기가 되면 시장출회가 적어져서 가격도 상승하는 것이 상례이며 외국에서도 이 시기에 다소의 변동이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소값이 올라가게 하는 것은 역행이다.

2) 영농자금(營農資金)회수 문제

영농자금의 회수가 연말에 강행되면 농촌에서는 미곡과 소, 돼지로 상환재원(償還財源)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장출회(市場出廻)를 더욱 가속화 시킨다.

3) 작년말부터 돈육(豚肉)의 대일수출에 영향 받은 양돈경기의 호조로 구매 사료의존, 특히 강류사료(糠類飼料)전용 양돈업자의 증가로 한정된 강류사료가 효율면에서 낭비되고 있으며 강류(특히 소맥피)수급의 불균형으로 더욱 우돈(牛豚)의 양축업에 경제적 압박이 가하여지고 있다.

이런문제가 일어날 수록 축산물 가격은 하락하고 3~4개월후 다시 상승하는 것이다. (내년3~4월경)

4) 금년에는 예년과 달리 국제시장의 사료원료가등귀로 배합사료 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하여 양돈 및 양계업자에게 경제적 압박을 가중시키

므로 더욱 어려운 연도(年度)가 되고있다.

5) 상기 각항의 사정으로 시장출회가 예년에 비하여 증가되면 증가된만큼 축산물가는 일시 저조하여지고 축산물가가 저조하여지면 질수록 명춘(明春)의 축산물가는 반대로 등귀하여지는 것이 상례이다.

양축업자나 정부나 여러상인이 모두 피부로 느껴서 생산을 조절하고 정부에서도 가려운점을 굽어주는 역할을 해야한다.

우리나라의 양계도 부업에서 전업, 전업에서 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한 발전과 더불어 사료문제도 똑같이 해결되어 나가야할텐데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

6) 자가사료이용, 부업축산 권장

농촌부업 양축은 그 치대에 있는 사료원료를 이용하고 구매사료에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부업축산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가사료 이외에는 부업축산을 하지 말도록 권장을 하여 주었으면 한다.

한편 기업양축가는 하나의 기업단위라해서 경영단위를 생각하지 않고 그 대책에 대해 무책임하지 말도록 해야한다.

7) 정부 보조의 균형

현재의 탈지강 밀기울이 다른 전분질보다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

정부가 은폐보조를 해주는 원료가 있을때나 정부가 은폐보조를 해주지 않는 원료가 있을때는 다같이 보조해야 하겠다.

8) 가격 현실화

사료업자가 경쟁을 할수있는 효율이 있는 사료를 위해서 가격을 현실화 해야 한다.

9) 축산물의 등급제 판매

축산물가격을 품질에 의해서 거래되어야 한다.

10) 축산물의 저장시설 필요

현재까지 축산물을 처리하기에 급급했지 조절하기 위한 시설은 하나도 없다. 일본의 경우 저장시설이 갖추어져서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격차를 15%로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장기대책을 두고 우리도 정비해야 한다.

11) 최근의 닭이 많이 죽는 요인

세균 요인이나, 사료의 직접 간접요인이나 이상한 일이다. 사료의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다.

정부에서는 어분을 100% 모두 국내잡어를 쓰라고하지만 사실상 닭에는 잡어를 7%이상 쓰지 말아야 한다. 육계는 1%정도 더 먹이더라도 그 이상 써서는 안된다. 돼지는 2~3%, 소는 3~4% 정도로 한다.

12) 대두박의 사용과 밀기울의 유통

대두박 사용을 너무 억제하지 말고 써야 한다. 비싼것이 들어와 있는데 비싼 것을 쓰고나면 싼것이 들어오지 않겠는가, 외화절약만을 위해서 닭이 죽든 병들든 상관하지 않아서는 되겠는가.

밀기울 유통에 있어서는 어느 특정한 양축가에겐 50%, 혹은 70% 혜택을 보고 있지만 누구든지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하나의 방법으로 조건부로 농축사료를 사가는 사람에게만 밀기울을 팔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미국사료곡물협회 아시아대표를 통한 미국에 제의한 사항

1) 우리나라가 여러가지 경제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료의 어느 하나를 사려해도 정부가 이러쿵 저러쿵 간섭이 심하지만 가격의 흐름에 따라 알맞는 사료를 사는데는 관여치 말도록 할것

2) 한국을 비롯한 대만, 인도, 파키스탄등과 같이 선진국이 조금만 도와주면 살수있겠다는 나라는 조금씩 도와주어야 한다.

3) 업계를 미국에 초청하는데 있어서 사료 공장에는 양축업자에게 선도역할을 할 수 있는 제 열화하고 독점이 있는 초청을 해줄것

4) 시세의 흐름에 따라 가장 경제적인 사료의 제조방법을 가르켜 주길 바란다.

5) 장기전망, 현재의 시세 등 정보교환을 하여 정확한 정보교환을 빨리해서 거리를 좁혀야

하겠다.

6) 축산물수급 장기화 방안에 자금을 투입하면 5~6년후에는 효과가 날 것이다.

즉 감수성이 빠른 어린이들에게 축산물의 소비선전용이 들어있는 책받침 등으로도 효과가 크리라 믿는다.

이상 부문별도 문제점을 몇가지 요약했다.

어려운때가 지나가면 나은때가 오지 않겠는가, 어떻게 덜 피해를 보고 현재의 불황을 이겨나가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닭고기나 계란을 싸게해서 소비시키는 것이 현시점에서 타당한가? 보상을 주려면 예산에 반영해야 할텐데 한국에는 그런 실정이 되지 못한다.

글을 맺기전에 앞서서도 나열된 내용이지만 축산업의 당면문제 및 사료부문에 대한 대책으로 몇가지 정리해 본다.

1. 양축업자에게 축산물의 소비 및 수출전망에 따른 축산물가격의 추세와 사료의 효율적이용과 사료가격의 인상요인등 전망을 알려 계획생산을 도모하여 생산을 조절하므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는 동시에 계획출하 등을 권장한다.

2. 부업축산은 농가부산물 및 자급사료위주로 권장하고 전업양축업자는 구매사료 의존시 축산물가격과 경영 및 기술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경쟁할 수 있는 소지를 마련하고 자율적인 생산을 권장한다.

3. 단미사료(강류)나 배합사료는 자체가 지닌 영양가치에 의하여 원료간 상호 대체 등 교육적인 활용을 위하여 질과 가격의 경쟁 제도를 채택한다.

4. 축산물가격은 등급제 거래를 권장하여 양질의 축산물을 생산하고 축산물의 저장조절책을 강구한다.

현재의 어려운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축산인

전체의 단합된 힘을 보입시다.